



삼계탕 2만원 시대
복날 외식 대신
'실속 홍보양'
니



Life

메디톡스
'HA필러'로
글로벌 재공략
L2



울창한 숲 속 곡선 산책로... 나무와 물이 만든 '자연의 리듬'

아파트의 미학(美學)

운정자이 시그니처

서울역에서 GTX-A 노선을 타고 약 20분 달리면 운정중앙역에 다다른다. 역에 내리자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선 새 아파트 단지 풍경이 펼쳐진다. 역을 나와 도보로 약 15분가량 걸다 보면 '운정자이 시그니처' 단지가 나타난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공급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지난 3월 입주 시작했다. 세대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등 특화 평면으로 선택 폭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인근에 GTX-A 운정중앙역이 개통되며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된 곳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자유로, 제2자유로 진입도 용이하다. 교육 여건으로는 운정중앙초·운정중앙중이 걸 건너에 자리하고, 운정중앙고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주변에 산내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운정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 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안에는 스카이라운지 성격의 '클럽 클라우드'를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됐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분양 당시 청약 열기도 높았다. 1순위 청약에 총 4만 명이 넘게 몰렸고, 평균 경쟁률은 64대 1을 기록했다. 당시 파주 역대 최다 청약 건수로 주목받았다.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5억1000만원대로, 분양가상



곡선 물길 따라 나무와 휴식 테이블을 배치한 단지 시그니처 공간 '엘리시안 가든'.

/성채리 수습기자

GTX 라인, 학세권 갖춘 988가구 규모 지명 맞춰 '구름' 콘셉트 살린 조경 조성 곡선 물길, 보행 동선으로 리듬감 더해

70년 팽나무, 단지 중심에 자리잡아 다채로운 나무 그늘 아래 '숲속 심터' 계절 꽃·정원석 어우러진 잔디광장도

곡선, 장식 재해석한 조형물 '르네상스' 이웃간 교류 쌓을 수 있는 소통공간도

한계가 적용돼 인근 신규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지는 지명에 담긴 '구름이 끼어 있는 우물'이라는 의미를 조경 곳곳에 반영했다. 특히 중앙의 '엘리시안 가든'은 운정자이 시그니처 조경의 첫인상을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공간이다. '운정명원'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수경 시설과 티하우스, 수목이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된다. 바닥을 따라 낮게 흐르는 검은 수경 라인 은 정원 사이로 물길을 만들고, 그 위에 놓인 곡선 보행 동선이 리듬감을 더한다.

수경시설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나무에 둘러싸인 흰색 티하우스를 만날 수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선 기둥과 일부가 열린 창 구조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든다. 흰 구조물과 물빛, 오래된 수형의 나무가 조화를 이루며 깔끔하고 차분한 단지 이미지를 완성한다.

운정명원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한층 더 숲에 가까워진다. '운정마당'은 구불구불한 산책길과 울창한 수목, 원목 테이블과 의자가 어우러진 휴식 공간이다. 길을 따라 걸다 보면 울창한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운다.

상징적으로 식재된 팽나무는 굵은 줄기와 넓은 수관으로 단지의 중심을 잡아준다. 입주민들의 삶이 서로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 풍요롭고 조화로운 일상으로 이어질 바라는 마음으로 식재됐다. 경남 지역의 해풍을 70여년 세월 동안 견뎌내며 자라난 이 팽나무는 오래된 마을 어귀에 들어선 듯 정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팽나무뿐 아니라 배롱나무와 단풍나무 등이 야기를 품은 수목들이 입주민을 반긴다. 배롱나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꽃을 피우는 나무로, 선비의 청렴함을 상징하는 정원수로 여겨졌다. 단풍나무는 정음 내장산 고택에서 70여년간 사계절을 지나온 수목으로, 변화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무가 지닌 시간과 상징을 소개하며 계절과 이야기가 쌓이는 공간으로 정원을 꾸렸다.

한쪽에는 입주민의 소통 공간인 청춘마당도 마련됐다. 사람들이 모여 머무는 광장형 휴게 공간으로, 사각형 구조의 테이블과 벤치, 낮은 화단이 질서 있게 배치돼 있다.

곡선이 강조된 수경시설이나 산책로와 달리 이곳은 직선과 사각 프레임 중심으로 정돈된 인상을 풍긴다. 중앙에 놓인 긴 테이블과 들레를 감싸는 벤치는 야외 회의 공간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경을 이웃 간 일상적 교류가 이뤄지는 생활 공간으로 확장한 모습이다.

근처 잔디마당에는 이형욱 작가의 조형물 '르네상스'가 놓였다.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기둥, 곡선, 장식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실내 장식이나 조형에서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를 확장한 형태다. 금빛 조형물은 주변의 녹지와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끈다. 기하학적인 선과 둥근 곡선, 반복되는 세로 결을 활용해 현대적 아름다움을 더한다.

'구름'이라는 단지 콘셉트는 커뮤니티 시설로 이어진다.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커뮤니티 시설은 클럽 클라우드(Club Cloud)라는 이름을 달았다. 단정한 입면과 정돈된 조경을 앞세워 단지 전체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맞췄다. 실버 카페와 숲속도서관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생활 공간도 마련됐다.

어린이를 위한 '스카이캐슬' 놀이터는 동화 속 성을 연상시키는 놀이시설이다. 아이들이 '하늘궁전' 안을 오르내리며 뛰어놀 수 있도록 꾸며졌다. 클라우드 가든은 파란색과 흰색을 중심으로 구름과 물방울 이미지를 살렸다. 입구의 'Cloud Garden' 아치와 구름 모양 장식은 단지 이름과 조경 콘셉트를 놀이 공간까지 이어주는 장치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



2



3

1 구불구불한 산책길과 울창한 수목, 테이블이 어우러진 '운정마당' 2 잔디마당에 위치한 이형욱 작가의 조형물 '르네상스' 3 엘리시안 가든 내 티하우스.

메트로 한줄뉴스



▲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 출격...삼성 '전반기 1위' 견인할까
▲ 아쉬운 전반기 보낸 SSG 김건우...후반기 달라지길 바라는 사령탑 /사진 뉴스시스

▲ 스피드스케이팅 팀 스프린트, 2030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 '선수단 정리' 롯데, 투수 박시영·내야수 최항 등 3명 방출

▲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최대한 협조"...참고인 손흥민은 불투명
▲ 송형근, 전국육상대회 남자부 400m 대회신기록 우승